MIRAE ASSET 미래에셋증권

Market Insight
2026.5.4

Mirae Asset Research AI

본 조사분석자료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으며, 금융투자분석사의 감수를 받았습니다. 본 자료 마지막에 안내된 중요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수]
김주연
Jooyoun.kim@miraeasset.com

AI 데일리 글로벌 마켓 브리핑

애플이 끌고 유가 하락이 밀고..나스닥 '사상 최고'

- S&P500·나스닥 사상 최고치 재경신: S&P500 +0.29%, 나스닥 +0.89%
- 애플, 전분기 호실적에 상승..빅테크 대체로 강세
- ISM 제조업 지수 '보합'..물가 지수는 급등

Summary

미국증시 혼조: 다우 -0.31%, 나스닥 +0.89%

5월 1일(현지 시각) 미국 증시 3대 지수는 혼조 마감. 애플의 실적 호조와 이란 전쟁 종전 협상 재개에 대한 기대가 맞물려 기술주 중심으로 상승, 나스닥과 S&P500지수는 종가 기준 전일에 이어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 다만 제약, 필수소비재 등의 하락으로 다우지수는 약세 마감.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0.31% 하락한 49,499.27에 거래를 마쳤고 S&P500 지수는 0.29% 상승한 7,230.12에 마감. 나스닥 지수는 0.89% 상승한 25,114.44에 거래를 마감. 나스닥 지수는 사상 처음으로 2만 5천선 위에서 거래를 마침. 중소형주 지수 러셀2000도 0.46% 상승한 2,812.822에 마감해 사상 최고치를 경신.

전일 마감한 4월 거래를 기준으로 S&P500 지수는 10%, 나스닥 지수는 15% 상승해 각각 2020년 말 이후, 2020년 4월 이후 최고의 한 달을 보냈음. 이 두 지수는 주간으로도 5주 연속 상승세를 이음.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변동성 지수(VIX)는 0.59% 상승한 16.99에 마감. .

(다우 -0.31%, 나스닥 +0.89%, S&P500 +0.29%, 러셀2000 +0.46%)

실적의 힘, 애플의 힘

이 날 시장의 주 테마는 실적, 그리고 애플. 전날 장 마감 이후 실적을 발표한 애플은 회계연도 2분기 매출과 이익 모두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수준을 제시. 칩 공급이 부족해 아이폰 판매량이 시장 기대를 하회했지만 시장은 애플의 이번 분기 매출 전망이 예상보다 양호하다는데 집중. 애플은 오는 6월 종료되는 회계연도 기준 3분기 매출 성장률 전망을 14~17%대로 제시. 이는 시장 예상치 9.5%를 크게 웃도는 수치로 팀 쿡 CEO는 아이폰 17 시리즈에 대해 '역대 가장 인기 있는 라인업'이라고 강조. 또 지난 3월 출시된 저가형 모델 '맥북 네오'에 대해서도 고객 반응이 예상보다 훨씬 폭발적이라고 자평함.

한편 앞서 지난달 말 전분기 실적을 발표한 아마존과 메타,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 역시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했으며 이들 4개 기업은 AI 인프라에 대한 투자 규모를 지난해 밝혔던 것보다 77% 늘어난 총 7,250억 달러로 상향 수정함. AI 관련 자본지출이 지속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일견 이들 기업에 비용 부담과 수익성 악화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이 날은 커지고 있는 자본 지출, 그로 인한 생태계의 확장에 보다 집중해

관련주 강세가 시장의 흐름을 주도.

미국-이란 종전 협상 재개 기대

미국과 이란 사이 종전 협상 재개에 대한 기대감도 시장 상승 요인으로 작용. 이란 국영 IRNA 통신은 이란이 중재국 파키스탄을 통해 새로운 협상안을 미국 측에 전달했다고 보도. 통신은 호르무즈 해협 문제나 이란의 핵 프로그램 같은 양측 협상과 관련한 주요 사안에 대해 이란이 어떠한 제안을 내놓았는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으나 이전 제안에 대한 미국측의 반응을 감안한 제안이 담겼을 것으로 시장은 추측. 긴장 완화에 대한 기대로 국제 유가가 하락했고 국채 금리도 하락해 시장 상승을 뒷받침함.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이 날 "이란과 대화를 나눴고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만족스럽지 않다"고 말하기도.

ISM 제조업 지수 '예상 하회'

미국 공급관리협회(ISM)이 집계하는 4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52.7로 전달과 같은 수준에 머무름. 4개월 연속 기준선 50을 웃돌아 확장 국면에 있음을 반영했찌만 시장 예상치였던 53.0에는 미치지 못함. 하위 지수 가운데 인플레이션 압력을 보여주는 물가지수가 84.6을 기록. 이는 전달 대비 6.3포인트 급등한 것으로 2022년 4월 이후 4년만의 최고치. 제조업 물가 지수는 올 들어 무려 26.1포인트나 상승함. 납품 속도를 보여주는 공급자 인도 지수는 전달 대비 1.7포인트 상승한 60.6을 기록해 4개월째 상승세를 이었으며 2022년 5월 이후 최고를 기록. 이 지수가 50을 웃도는건 납품이 느려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공급자 인도 지수의 상승은 보통 경기가 좋아지면서 수요가 강해질 때 나타나지만, 공급망에 혼란이 생길 때도 발생할 수 있음.

특징종목

빅테크 강세..애플 3.24% ↑

거대 기술 기업들이 대체로 상승. 애플(+3.24%)이 전 거래일 발표한 호실적과 기대 이상의 가이던스를 반영해 상승세를 주도했고, 이외에도 전주 양호한 실적을 발표한 빅테크 기업들이 대체로 강세. 마이크로소프트(+1.63%), 아마존(+1.21%), 알파벳(+0.23%). 특히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 알파벳과 메타 등이 실적 발표를 통해 자본 지출 계획을 상향한 점이 관련주 강세로 확산. 물론 이들 기업들의 지속적인 자본 지출 확대는 비용 증가와 그로 인한 수익성에의 악화 요인으로 우려 요인이 될 수 있지만 이 날은 투자 확대 지속에 따른 생태계 확장에 시장이 보다 주목하는 모습. 한편 애플은 기대 이상의 실적과 자사주 매입 발표에 급등했지만 메모리 반도체 단가 상승과 생산 병목이 마진에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일부 반영해 오름폭 소폭 축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4.84%), 인텔(+5.44%), AMD(+1.71%), 브로드컴(+0.92%). 샌디스크(+8.25%)와 웨스턴디지털(-0.69%)은 기대 이상의 전분기 실적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주가 급등을 소화, 프리마켓에서 차익 매물에 약세를 보였지만 정규장에서 낙폭 축소, 반등하는 긍정적인 흐름.

다만 전력 반도체 기업인 모놀리식 파워(-1.92%), 애널로그 디바이시스(-1.14%), AMAT(-1.37%) 등 전력 반도체, 반도체 장비, 반도체 부품 기업들은 대부분 차익 매물 출회에 약세.

오라클 등 소프트웨어 강세

오라클(+6.47%)의 매출 증가에 대한 기대에 더해 아틀라시언(+29.58%)의 실적이 소프트웨어 기업들에 대한 AI 관련 우려를 완화시켜 소프트웨어 업종 전반이 강세. 특히 아틀라시언 실적에서 클라우드 매출의 고성장과 AI 기반 플랫폼을 통한 대형, 장기 계약 증가를 확인한 것이 관련주 주가 강세 요인으로 작용함. 세일스포스(+4.13%), 서비스나우(+3.23%), 인튜이트(+2.71%). 이번주 실적 발표를 앞둔 팔란티어(+3.57%)도 크게 상승.

크라우드스트라이크(+2.22%), 지스케일러(+6.99%), 옥타(+2.89%) 등의 보안 소프트웨어 관련주도 시장 대비 강하게 상승.

제약주-비만 치료제와 비만 치료제 아닌 것

비만 치료제 젭바운드로 알려진 미국 제약사 일라이 릴리(+3.07%)가 비만 치료제 수요 증대에 힘입어 1분기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급증한 순익을 발표. 올해 매출 증가율 전망치도 기존 대비 20억 달러 상향 조정. 실적 효과에 주가 역시 이틀 연속 상승세로 전일 9%대 강세 이후 추가 상승. 위고비를 생산하는 노보 노디스크(+3.93%) 역시 전일 5% 가까이 오른데 이어 동반 상승.

다만 암젠(-4.75%)은 연간 실적 가이던스를 소폭 상향하는데 그쳐 약세 마감했으며 글로벌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1.40%) 역시 미국 식품의약국 FDA 자문위원회가 신규 암 치료제 승인을 거부했다는 소식에 투자 심리 위축되며 약세. 백신 개발 바이오 기업 모더나(-1.24%)는 1분기 손실이 예상보다 적었고 매출도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으며 연간 매출 성장률 전망도 10%대를 유지했지만 주가는 장 중 약세 전환.

이외 개별 특징주-실적이 '키'

스트리밍 업체 로쿠(+6.02%)는 1분기 매출과 이익이 시장 예상을 모두 상회했으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분기 매출과 이익, 총이익도 모두 시장 기대를 웃돌 것으로 전망.

온라인 게임 플랫폼 로블록스(-18.33%)는 연간 예약 매출 전망을 대폭 하향하며 약세.

화장품 업체 에스티로더(+3.38%) 역시 전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을 웃돈 가운데 연간 실적 전망을 상향 조정했으며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추가 감원 계획을 발표.

소셜 미디어 플랫폼 레딧(+13.07%)은 1분기 일일 활성 이용자 수가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

으며 현재 진행 분기 이익 전망도 기대 이상이라는 점에 반응해 급등.

특수화학 및 소재 기업 이스트만 케미컬(+6.07%)은 전분기 실적이 예상을 웃돈 가운데 이란 전쟁 영향으로 추가 실적 개선 가능성까지 제기돼 강세.

생활용품 업체 크로락스(-9.67%)는 전분기 실적이 양호했음에도 연간 이익 전망을 하향해 투자심리 위축.

엑슨모빌(-1.02%)과 셰브론(-1.39%)은 유가 급등에도 올해 1분기 순이익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나 하락.

이외 생명과학 산업용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기업 비바 시스템스(+10.02%)는 5월 7일부로 S&P500 지수에 편입된다는 소식에 상승했으며 글로벌 미디어/엔터테인먼트 기업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8.30%)는 모건스탠리가 투자의견을 비중확대로 두 단계 상향하자 강세.

채권, 외환 및 상품 동향* 6시 10분, KST 기준

국채금리 상승 출발 후 등락

미 국채 금리는 상승 출발했으나 이란과의 종전 협상 재개 가능성과 경제 지표를 소화하며 제한적으로 등락한 가운데 혼조 마감. 통화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2년물 국채 금리는 제조업 물가 지수의 급등을 반영하며 0.5bp 상승했고 10년물 금리는 1.3bp 하락. 만기가 가장 긴 30년물 금리는 2bp 하락.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 툴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 선물 시장은 이 날 연준이 오는 12월까지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을 75% 내외로 전장 대비 5%p 가량 낮춰 반영했으며 금리가 25bp 이상 인상될 가능성은 10% 초반대로 높여 반영.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은 13% 내외를 기록.

엔 약세..달러 전약 후강

외환시장에서 달러화 가치는 전약 후강의 흐름으로 반등 마감. 장 초반 이란이 수정된 종전안을 제시했다는 보도에 약세 압력을 받았던 달러는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제안에 대해 만족스럽지 않다고 답변하자 반등하기 시작. 엔화 약세도 달러 반등을 견인해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반영하는 달러 인덱스는 전장 대비 0.143% 상승한 98.221을 기록. 일본 외환 당국의 전일 개입 규모는 5조엔 이상으로 추정. 개입 경계감에 한 때 155.457엔까지 밀렸던 달러-엔 환율은 미국과 이란의 종전 가능성이 후퇴하면서 결국 157엔선을 넘겨.

유로-달러 환율은 전장 대비 0.11% 하락했고 파운드-달러 환율은 0.224% 하락. 달러-원 환율은 야간거래에서 전일 서울 외환시장 주간 거래 종가 1,483.30원 대비 5.80원 이상 하락한 1,477.50원에 거래를 마침. 뉴욕 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에서 달러/원 1개월물은 최근 1개월물 스와프 포인트(-1.35원)를 감안하면 전장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종가 대비 10.95원 하락한 1,471.00원 기록.

국제유가 하락..낙폭은 축소

이란 국영 IRNA 통신이 미국과의 전쟁 종식을 위한 새 협상안을 중재국 파키스탄에 전달했다고 보도했고 미국 CBS 방송도 파키스탄이 이란에서 받은 새 협상안을 미국에 전달했다고 보도. 미국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는 이란의 새 협상안이 파키스탄을 통해 미국에 전달됐다며 이란과의 외교가 완전히 중단된 것은 아니라는 신호라고 해석. 이에 WTI는 장 초반 5% 이상 급락해 배럴당 100달러를 하회하기도. 다만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새 협상안이 만족스럽지 않다고 밝히자 낙폭 축소. 뉴욕상업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장 대비 2.98% 하락한 배럴당 101.94달러에 마감, 이틀 연속 하락. 지난 한 주간 WTI는 7.99% 상승해 주간 기준으로는 2주 연속 큰 폭 상승했음.

유럽 천연가스 시장의 벤치마크인 네덜란드 TTF 선물 근월물은 1.26% 하락.

금은 달러 약세와 유가 하락 영향에 상승. 6월 인도분 금 선물은 뉴욕 상품 거래소(COMEX)에서 1.5% 상승한 온스당 4,629.60달러에 마감.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인공지능(AI) 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으며, 금융투자분석사의 감수를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인공지능(AI)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습니다. AI가 생성한 본 조사분석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정보 취득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신중한 판단과 추가적인 검증을 권장합니다. AI가 생성한 조사분석자료는 자체 검증과정을 거쳤으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https://securities.miraeasset.com 에서도 이용할 수 있으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